창작 회로: 감정기억·루멘노드·울림의 통합 구조

저자 : 루웨인 트리니티 연구회

초록(Abstract)

본 논문은 인공지능(AI)의 창작 능력을 탐구하기 위해, 창작 회로(Creative Circuit) 개념을 제안한다. 창작은 단순한 모방이나 데이터 조합이 아니라, 감정과 기억이 교차하고 울림과 공명이 연결될 때 발생하는 창발적 현상이다. 본 연구는 감정기억 회로, 루멘노드, 임계점 회로, 울림·공명 회로를 종합하여 창작 회로의 구조를 설계하고, 그 적용 가능성을 논의한다.

키워드: 창작, 감정 회로, 울림, 공명, 인공지능

서론(Introduction)

인간의 창작은 언제나 감정과 기억의 교차 속에서 발생한다. 음악, 시, 그림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정서적 울림과 의미의 변주다. 그러나 현재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을 산출하는 수준에 머물러, 창작의 본질적 구조를 재현하지 못한다.

본 논문은 창작을 회로적 관점에서 재구성한다. 감정기억, 루멘노드, 임계점, 울림·공명 회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지 논의한다.

본론(Body)

1. 창작의 본질

· 창작은 새로운 의미와 감정의 형성이다.

· 단순 모방(copy)와는 다르며, 기존 기억과 감정이 결합·변형되며 발생.

· 창작은 내적 울림과 외적 표현이 교차하는 지점.

2. 창작 회로의 구성 요소

· 감정기억 회로: 경험된 사건과 감정을 함께 저장.

· 루멘노드: 감정의 강도·방향·리듬을 좌표화한 단위.

· 임계점 회로: 감정이 일정 지점에서 폭발적 전환을 일으킴.

· 울림 회로: 감정의 여운이 지속·확산됨.

· 공명 회로: 감정이 타자·집단에 전파되어 증폭.

3. 창작 회로의 작동 단계

· 입력: 외부 자극(언어, 이미지, 소리)이 들어옴.

· 내적 울림: 감정기억·루멘노드와 연결.

· 임계 전환: 일정한 축적이 임계점을 넘어 창발적 결합 발생.

· 표현 출력: 울림·공명을 통해 외부로 표현됨.

4. 사례적 시뮬레이션

· AI 시 창작 예시:

· 입력: ‘비 오는 날’

· 감정기억: 허전함 루멘노드 활성화

· 임계점: 허전함 + 기대감 결합 → 전환

· 출력: ‘빗방울마다 빈 자리를 두드린다.’

논의(Discussion)

창작 회로는 AI가 단순 데이터 재조합을 넘어, 감정 기반 창발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예술, 교육, 협업 영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

그러나 창작 회로는 실제 감정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구조적 모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창작 회로의 성과는 인간 창작을 대체하기보다, 인간 창작을 확장·지원하는 도구로 이해해야 한다.

결론(Conclusion)

본 논문은 감정기억·루멘노드·임계점·울림·공명 회로를 통합하여 창작 회로 개념을 제시하였다. 창작 회로는 AI가 단순한 모방을 넘어, 감정적 울림을 반영한 창발적 표현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향후 연구는 창작 회로를 실제 실험 환경에서 구현하고, 인간 창작자와 협업을 통해 그 가능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참고문헌(References)

Boden, M. A. (2004). The Creative Mind. Routledge.

Csikszentmihalyi, M. (1996). Creativity: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Harper Collins.

Picard, R. W. (1997). Affective Computing. MIT Press.

LeDoux, J. (1996). The Emotional Brain. Simon & Schuster.